

#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글로벌 활용을 위한 전략 연구 : KMDC(Korea Music Data Center)를 중심으로\*

## A Strategic Study on the Global Utilization of K-Pop Digital Archives: Focusing on the Korea Music Data Center (KMDC)\*

김현태(Hyun-Tae Kim)<sup>1</sup>, 배나윤(Na-yun Bae)<sup>2</sup>, 이진성(Jin-seong Lee)<sup>3</sup>,  
김건(Geon Kim)<sup>4</sup>

E-mail: ht.kim0729@jbnu.ac.kr, teacher3589@gmail.com, 202450369@jbnu.ac.kr,  
godardkim@jbnu.ac.kr

- 1 제1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 2 공동저자 전북연구원 기록연구사
- 3 공동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
- 4 교신저자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교수 |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장



논문접수 2025.04.13

최초심사 2025.04.22

게재확정 2025.05.28

ORCID

Hyun-Tae Kim  
https://orcid.org/0000-0003-1502-9036

Na-Yun Bae  
https://orcid.org/0009-0002-6815-2038

Jin-seong Lee  
https://orcid.org/0009-0009-8952-7610

Geon Kim  
https://orcid.org/0009-0008-2740-2284

### 초 록

본 연구는 KMDC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K-POP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했으며, 다양한 산업과 연계된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K-POP 관련 기록물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감정과 기억을 공유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문헌 조사, 국내외 사례 분석,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문화콘텐츠전문가, 국내외 K-POP 팬덤 대상 FGI를 통해 아카이브의 한계와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화 번역 중심의 글로벌 접근성 강화, Fandom Studio 운영, K-POP MAP 구축, K-POP 디지털 유산 보존소 마련, 감정 기반 참여형 플랫폼 전환 등 다섯 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는 기술적 개선을 넘어 팬 중심-문화 교류 중심의 아카이브 패러다임 전환을 지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KMDC가 글로벌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기록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global utilization potential of the Korea Music Data Center (KMDC) and propose strategies to realize this goal. K-pop has already established itself as globally influential cultural content and is expanding into a cultural platform interconnected with various industries. Accordingly, K-pop-related archival records must evolve beyond simple data accumulation into cultural platforms that share emotions and memories. To this end, a comprehensive review of literature was conduc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were analyzed,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held with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cultural content expert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K-pop fando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archive from multiple perspectives. As a result, five strategic directions were identified: enhancing global accessibility through cultural translation, operating a Fandom Studio, constructing a K-pop map, establishing a K-pop digital heritage archive, and transforming the platform into an emotion-based participatory archive. These strategies are aimed at not only technical improvements but also a fundamental paradigm shift toward a fan-centered archive that facilitates cultural exchange.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 direction for the KMDC to evolve into a global cultural heritage platform and broadens the discourse on the public value and social role of archival records.

**Keywords:** K-POP, 디지털 아카이브, 팬덤 기록물, KMDC, 문화유산  
K-pop, Digital archive, Fandom records, Korea Music Data Center (KMDC),  
Cultural heritage

####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이 논문은 전북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류는 19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K-POP은 이를 선도하는 핵심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확산으로 K-POP은 유럽, 북미, 남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K-POP을 통한 한류는 모든 영역에서 폭 넓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적 경계마저 무너트리면서 더욱 자유롭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디지털 환경의 정착과 함께 K-POP 관련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프랑스 작가이자 최초의 문화부 장관인 Malraux(1947/2004)는 그의 저서인 「상상의 박물관(Le Musée Imaginaire)」에서 “문화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간의 존재 의미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문화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가치를 강조했다. 그의 통찰은 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창조적 재해석이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문화의 중심으로 떠오른 K-POP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K-POP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단순히 음악 산업의 한 장르를 넘어 세계적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K-POP 아티스트들은 음악, 퍼포먼스, 패션, 미디어 활용 등을 통해 문화의 다차원적 가치를 실현하며 전 세계적으로 팬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K-POP은 과거의 음악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현재의 글로벌 문화와 연결하며,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유산으로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적 성과와 기록들은 적절한 보존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가치가 퇴색되거나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콘텐츠는 물리적 매체보다 보존의 안정성이 낮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디지털 아카이빙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K-POP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여 단순한 콘텐츠 저장소를 넘어, 과거의 음악적 유산을 기록하고 현재의 트렌드를 분석하며 미래의 학문적 연구와 대중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K-POP 디지털 아카이브는 Malraux의 말처럼 문화의 본질을 구현하며,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도구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디지털 아카이브는 글로벌 소통의 중심이 되어 K-POP의 팬덤과 전 세계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한 기록 플랫폼으로서 K-POP의 문화적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글로벌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K-POP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글로벌 활용 방안을 통해 K-POP의 기록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보존하고, 문화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며 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Malraux의 통찰을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단순한 데이터베이스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문화의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소통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1.2 선행연구

2000년대 초반, K-POP이 한류열풍을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은 K-POP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K-POP과 한류의 영향, K-POP을 활용한 교육, BTS, 팬덤, K-POP의

마케팅 효과 등의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흐름에 발맞춰 기록관리학 분야에서는 K-POP의 기록적 가치에 따른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중요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K-POP의 세계화 및 가치성에 대한 측면의 연구들과 K-POP 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측면의 연구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K-POP의 세계화와 가치성에 대한 연구로, 이아름(2019)은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수에서 아이돌, K-POP 스타를 거쳐 Pop Artist가 되는 일련의 과정이 음악 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화장품과 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 효과를 가져왔음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세계화 과정에서 K-POP의 문화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국 대중음악의 전반을 차지하면서 음악의 다양성이 제약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주신(2022)은 K-POP의 미국 시장 및 빌보드 차트 진출과정에 있어 BTS의 기획사, 아티스트, 팬덤을 중심으로 SNS를 활용한 팬덤과 소통, 독창적인 음악과 스토리텔링, 차별화된 퍼포먼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K-POP 세계화의 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및 증명하고, K-POP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사회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그 종합적인 영향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다음은 K-POP 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측면의 연구로, 이영지 외(2019)는 대중음악 아카이브에서 K-POP 팬덤의 기록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BTS 팬덤 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팬들은 대중음악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전문기관에 기증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혁주(2022)는 한국 대중음악 아카이브인 KMDC(Korea Music Data Center)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기록물의 관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연구에서 나타난 KMDC의 문제점으로 납본 기록물과 함께 제공되는 메타데이터의 부족, 납본에 의존한 수집과 보존 위주의 기초적 아카이브 운영을 지적하였으며, 법령 개선, 독립적 모기관의 필요성을, 수집 측면에서는 납본 외 다양한 기증처를 통한 수집을, 활용 측면은 라키비움 형식과 음악기록 큐레이션의 다양화를 제안하였다. 김현태(2024)는 BTS를 중심으로 한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프로세스와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온라인 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아카이브의 구축과 서비스 방향 제시를 위해 BTS의 음악활동 과정에 따른 생산기록물을 파악하고,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여 K-POP 기록물에 대해 정의하였다. 또한, 국내외 BTS 팬덤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K-POP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K-POP의 세계화 및 가치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K-POP이 한국의 이미지와 경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K-POP이 세계적으로 성공하게 된 배경에도 SNS 등의 철저한 마케팅 전략이 뒷받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K-POP 기록물의 관리와 서비스를 위한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K-POP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K-POP 기록물의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아카이브 연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K-POP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K-POP을 활용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YouTube Shorts, BTS World(모바일 게임) 등)과 AR(Augmented Reality) 및 VR(Virtual Reality) 기반 인터랙티브 전시와 같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K-POP 기록물에 대한 활용적 가능성에 주목하여, KMDC의 K-POP 디지털 아카이브 글로벌 활용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의 음악 아카이브인 KMDC의 K-POP 디지털 아카이브를 글로벌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문헌 연구, 국내외 음악 분야 디지털 아카이브의 우수 사례 조사, 7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디지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10년 이상의 문화콘텐츠 전문가와 국내외 K-POP 팬덤을 대상으로 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바탕으로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를 통해 선행 연구 및 관련 이론을 분석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관한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기관의 우수 사례를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 각 3개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수 기관 선정에 위해 이윤령과 이해영(2014)이 제시한 이용자 서비스 측면의 우수 사례 평가 기준과 하은미 외(2022)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색 서비스 기준을 참고하여 <표 1>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 사례 기관을 선정하였다.

<표 1> 국내외 음악분야 디지털 아카이브 기관 선정의 객관적 지표

분석 영역	분석 항목	세부항목
접근성	정보제공	기관 연락처 제공
		관련 기관 연계
		다국어 지원
검색	검색도구	통합검색
		결과 내 재검색
		상세검색 및 필터기능
서비스	전시	온·오프라인 전시
	자료제공	교육/연구용 자료 제공 및 음원 다운로드 기능
운영	정책	자료 기증 정책
		SNS 활용

셋째,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글로벌 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사점을 검증하고자, 디지털 기록물관리 및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가와 K-POP 팬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① 디지털 기록물 관련 업무 경력 7년 이상, ② 학계, 공공, 공기업 등 다양한 기관 유형에서의 근무 경험, ③ 기록물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주기를 이해하고 있는 점, ④ K-POP에 대한 활용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팬덤 활동 경력을 보유한 점, ⑤ 문화콘텐츠 분야 경력 10년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명, 문화콘텐츠분야 전문가 3명, K-POP 팬덤 활동 경력이 있는 국내 참여자 8명, 해외(중국) 참여자 2명을 선정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학교(3명), 공공기관(1명), 공기업(1명) 소속으로, 디지털 기록물의 생성, 관리, 보존 및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영화제 사무국장(1명), 페스티벌 기획자(1명) 축제컨설팅전문가(1명)로 관련 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K-POP 팬덤 참여자는 BTS ARMY(아미), 세븐틴 Carat(캐럿) 등 현재 활동 중이거나 과거 활동 경험이 있는 이들로, 국내 8명과 해외(중국) 2명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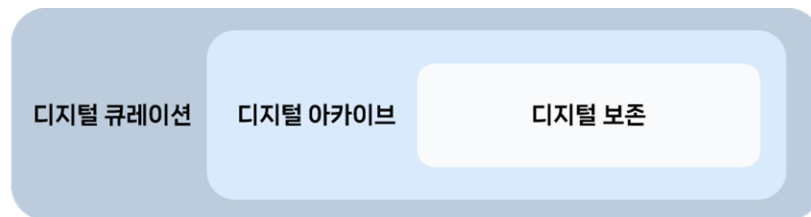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터뷰는 2025년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문화콘텐츠 전문가 및 국내외 K-POP 팬덤 인터뷰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앞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용 질문지는 총 12문항, K-POP 팬덤용 질문지는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항목 수가 다른 이유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관점 차이를 반영하여, 팬덤용 질문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기 때문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SAA(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기록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정의된다. 개인, 가족, 조직, 공공 또는 민간에서 업무 과정 중 생성하거나 획득한 자료 중 지속적인 가치와 증거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자료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아카이브 개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기록물의 저장 및 활용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아카이브가 주로 전문가나 연구자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접근성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 현대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대중성과 접근성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연구자들에 따라 본질은 동일하지만 표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Hodge(2000)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디지털 정보를 장기 활용하기 위해 수집, 저장, 보존, 접근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정보 보존은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고 보았다. 이소연(2002)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속적 가치를 지닌 디지털 객체를 무한한 미래까지 장기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서은경(2004)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을 생명주기별로 보존·관리하여 미래 사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규정하였다. 설문원(2005)은 <그림 1>과 같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및 범주를 규정하였으며, 디지털 아카이브를 초기에는 디지털 자원의 수집·저장·변환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았으나, 이후에는 지속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원을 선별·보존·관리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 활동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김현태, 2024).



<그림 1> 디지털 아카이브의 개념 및 범주(설문원, 2005)

이와 같이 학자 간 견해 차이는 있으나,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보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에 따라 초기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 저장을 넘어, 보존 가치가 있는 정보를 선별·관리하여 미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총체적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는 전통적 아카이브의 개념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확장시킨 결과물로 자료의 보존과 활용성 증대를 넘어 지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는 미래 정보 자원의 중심으로서 학문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영역에서 그 역할이 더욱 확장되고 폭넓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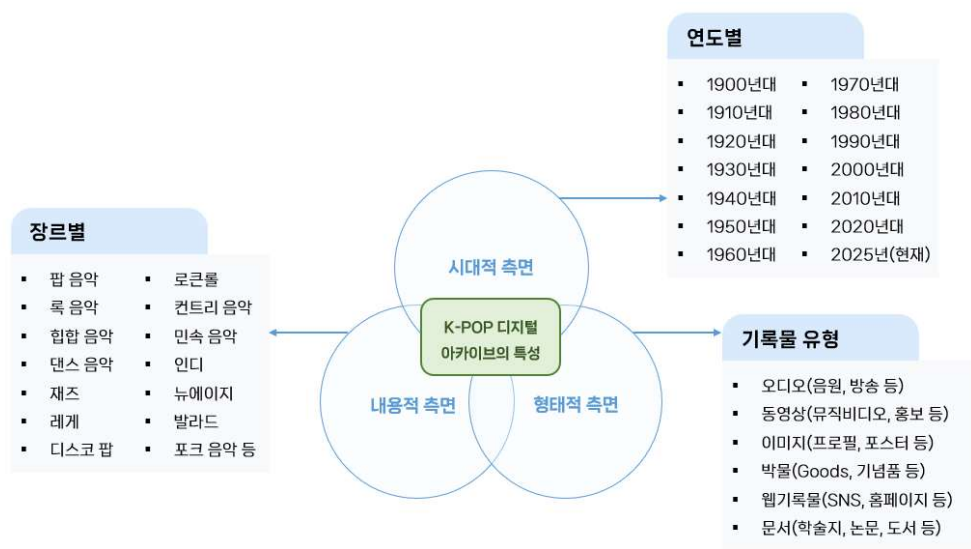
### 2.2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의미

K-POP이라는 용어는 'Korean Popular Music' 또는 'Korean POP'의 줄임말로, 넓은 의미로는 한국의 모든 대중음악을 통칭하기도 하며, 좁은 의미로는 K-POP이라는 한 장르의 음악을 지칭하기도 한다. 더불어 세계 각지에서 한류의 물결이 거세짐에 따라 K-POP이라는 표현은 국내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으며, 한국 내에서도 해외에서 유행한 한국 대중음악에 대해 K-POP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특히, 해외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유행은 아이돌 음악

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K-POP의 의미 또한 아이돌 음악을 중심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POP은 해외 팬들에 의해 'J-POP', 'Latin POP'과 같이 한국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악 장르이자 독창적인 하나의 음악 스타일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김현태, 2024).

K-POP 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와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K-POP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K-POP은 기획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제작 시스템의 산물이다. 콘셉트 기획, 장르 융합, 화려한 퍼포먼스, 글로벌 트렌드 반영 등 차별화된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이승연, 장민호, 2019). 또한,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제작·유통까지 전개되며 기존 한국 대중음악과는 다른 산업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환경과 SNS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기획사는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유통하고, 이는 편리한 접근성과 공유 기능을 통해 해외 확산에 기여하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했다. 셋째, 강력한 팬덤 문화이다.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수집·생산·공유하며, 이러한 활동은 K-POP의 세계화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정주신, 2022).

따라서 K-POP 콘텐츠에 대한 기록물 관리는 각 특성에 맞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먼저, K-POP 기록물은 기획사, 프로듀서, 아티스트 등 여러 주체가 얽힌 복합적인 관계와 다양한 활동 속에서 생산된다. 이에 K-POP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물의 생산 주체와 성격을 파악하고, 생산 시점부터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을 선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현대의 K-POP 기록물은 주로 디지털 환경에서 생산되며, 과거 아날로그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음반 자료뿐 아니라 SNS, 뮤직비디오,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형식이 활용되므로, 이에 적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POP 팬덤은 아카이브의 주요 이용자이자 기록물 생산의 중요한 축으로, 팬덤 사이트, 굿즈, SNS 활동자료, 사진 및 동영상 등 팬덤의 기록물은 동시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K-POP 아카이브 특성(김현태, 2024)

이에 <그림 2>와 같이 K-POP 디지털 아카이브는 시대적, 내용적, 형태적 측면에서 생산되는 유형들이 개인과 그룹, 기획사, 팬덤 등의 음악 관련 조직들이 K-POP 음악과 관련된 활동 과정 중 생산되는 디지털 혹은 디지털화

된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수집 및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수행하는 제반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다(김현태, 2024).

### 3. 국내외 음악분야 디지털 아카이브 우수사례 분석

#### 3.1 국내 음악분야 디지털 아카이브

##### 3.1.1 아리랑 아카이브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아리랑 관련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대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리랑 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2014년에는 SP, LP, 테이프, REEL, DAT 등의 복각 및 채집 음원을 디지털화한 ‘아리랑 디지털 음원 아카이브’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15년 아리랑이 국가무형유산 제129호로 지정되면서 공연영상, 악보, 가사지, 시대별 상품 등 다양한 기록물로 아카이빙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6년에는 아카이브 자료가 국가유산청에서 국립무형유산원으로 이관되며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다.

아리랑 아카이브 온라인 사이트는 아카이브 소개, 역사, 기록물 현황 및 검색, 아리랑 이야기, 이용 안내 등 총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아카이브 소개’ 메뉴에서는 아카이브의 연혁, 운영 과정, 수집 자료 유형, 자료 제공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리랑’ 메뉴에는 아리랑의 역사, 지역 아리랑 보존회 소개, 공지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메뉴에서는 영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아리랑 홍보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아리랑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적인 글로벌 마케팅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리랑 현황/검색’ 메뉴에서는 통합검색, 아리랑 표준악보, 아리랑 현황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통합검색 기능을 통해 전체 아카이브 자료를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으며, 음반, 음원, 영상 등 자료 유형과 국가별·연도별 조건을 설정해 원하는 결과를 세부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기존 검색 결과 내에서 추가 정보를 좁혀볼 수 있는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이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아리랑 표준악보’에서는 총 9종의 악보가 제공되며, 이는 지역별 아리랑의 특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유용한 학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황목록’에서는 2025년 1월 기준으로 음반 5,221건, 음원 2,324건, 영상 815건 등 총 8,360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각 기록물은 곡명, 생산 연도, 소장처 등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리랑 이야기 메뉴에서는 영화와 아리랑, 북한과 아리랑, 문학과 아리랑, 교과서의 아리랑, 아리랑의 상품화, 한인 동포 사회의 아리랑, 무용과 아리랑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단순한 텍스트 나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함께 제공되어 가독성이 높으며, 이용자가 아리랑에 얽힌 신화나 인터뷰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용 안내’ 메뉴에서는 아카이브 이용 방법, 저작권 안내, 기증 문의 등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 이용자는 구글 지도를 활용한 위치 정보와 함께 필요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권 정보를 통해 아카이브의 이용 방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메뉴는 이용자와 아카이브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료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아리랑 아카이브의 메뉴 구성은 아리랑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탐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각각의 메뉴는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를 학문적, 예술적, 대중적으로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리랑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각 분야에서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폭넓게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1.2 서태지 아카이브

서태지 아카이브는 한국 대중음악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서태지의 활동과 팬덤의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서태지 팬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아카이브이다. 2012년 3월 23일 공식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서태지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는 진행형 아카이브이다. 기록물 수집에 있어 서태지 아카이브는 아날로그 형태의 기록물은 입력이나 촬영, 스캔 등의 방식으로 디지털화하여 수집하고, 디지털 형태의 기록물은 원본과 출처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중들에게는 서태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는 문화적·사회적 분석을 위한 공공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할을 바탕으로 서태지 음악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일방적인 정보전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기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풍부하고 다층적인 아카이브를 지향하고 있다.

서태지 아카이브 사이트는 'SEOTALJI', 'MEDIA', 'FANDOM', '&MORE', 'SEOTALJI-ARCHIVE' 등 총 5개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각 메뉴별 기록물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2월 기준으로 'SEOTALJI'에는 음반, 발매 영상, 공연 자료 등 총 834건, 'MEDIA'에는 TV·동영상, 라디오, 신문, 잡지, 책 등 총 9,227건, 'FANDOM'에는 팬사이트, 팬덤 활동, 태지매니아, 관련 물품 등 총 4,190건, '&MORE'에는 T's Map, 에피소드 등 총 475건의 기록물이 수록되어 있다.

'SEOTALJI' 메뉴는 히스토리, 음반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서태지의 음악 활동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있다. 'MEDIA' 메뉴는 팬들이 수집한 자료를 회원제로 등록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게시하는 공간으로, 기존 자료보다 해상도나 출처 면에서 품질이 더 높은 자료가 접수될 경우 이를 기존 자료와 비교해 고품질 자료로 교체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FANDOM' 메뉴는 팬들이 생산하거나 수집한 용어집, 굿즈, 팬아트 등 다양한 자료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 전시하고 있다. 특히 용어집은 서태지와 팬덤 내에서만 사용되거나 기존 의미와 다르게 해석된 용어들을 정리한 것으로, 예를 들어 '나이키 텍션'(서태지의 텍션)이나 '매니아'(서태지 팬의 정식 명칭)와 같은 표현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팬덤 내에서만 통용되는 고유한 언어로, 서태지 아카이브에서 팬덤의 언어적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된다. '&MORE' 메뉴는 서태지의 공연 장소, 방문지, 에피소드 등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해 게시하는 공간이다. 특히 'T's Map' 기능은 구글 맵과 연동되어 관련 장소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며, 각 자료에는 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국내외 공연장이나 방문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데이터 제공을 넘어 아티스트와 팬덤이 공유해온 시간적·지리적 흔적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특정 장소와 관련된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디지털 지도 기반의 역사·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아카이브가 단순한 자료 축적을 넘어 장소적 경험과 서사를 결합한 풍부한 이용자 경험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SEOTALJI-ARCHIVE' 메뉴는 아카이브 소개, 운영 방침, 저작권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FAQ, Q&A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아카이브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서태지 아카이브의 검색 기능은 통합검색창을 제공하고 있지만, 키워드 입력만 가능한 단순한 방식으로 상세 검색 옵션이 제공되지 않는다. 이에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각 메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야 하므로, 검색 과정이 단순하지만 효율적으로 자료를 검색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이용자가 서태지의 음악 활동, 팬덤 문화, 공연 장소 등 메뉴별로 심층적인 자료를 탐색하도록 설계된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검색 기능 개선을 통해 상세 검색 옵션이나 결과 내 재검색 기능이 추가된다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3.1.3 서울우리소리박물관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은 2019년 11월 개관한 서울시의 전통 음악 전문 박물관으로, 한국의 향토 민요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서비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내 최초의 소리박물관으로서 향토 민요 자료를 중심으로 민속 음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승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박물관은 구입과 기증을 통해 종이류, 박물,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민요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기준 보존 기록물은 실물자료 4,437건(수집 아카이브 3,799건, 소장품 625건, 기관 아카이브 13건), 디지털자료 2,998건(음향 2,986건, 이미지 12건)으로 조사되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일반인과 연구자가 민요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사이트는 ‘관람·이용’, ‘전시’, ‘프로그램’, ‘우리소리 아카이브’, ‘우리소리 큐레이션’, ‘소식·참여’ 등 6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관람·이용’ 메뉴는 관람 정보와 박물관 소개를 제공하며, ‘전시’ 메뉴는 온·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전통 음악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라인 전시에서는 상설 전시를 포함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개최된 특별전 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VR 전시를 통해 몰입형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흥미를 유도하고 전통 음악 학습으로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프로그램’ 메뉴에서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소리 학습 콘텐츠, 민요를 활용한 팝업카드 제작 영상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면서, 우리 소리와 관련된 교육적 경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우리소리 큐레이션’ 메뉴는 우리 소리 관련 영상 및 음원 자료를 이용자의 관심과 필요에 맞게 큐레이션 하여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가 자신의 학습 경로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소리 아카이브’는 자료검색, 지도검색, 컬렉션의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검색에서는 실물자료와 디지털자료를 구분하고, 국내, 제주도, 마포구 등 생산 지역이나 민요, 논농사, 가창유효음 등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음향류, 문서류, 영상류 등의 형태 분류와 세부 조건 설정을 통해 검색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메타데이터 기반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전문용어 사전이나 시소러스(thesaurus)와 같은 검색 보조 도구가 제공되지 않아, 전문 연구자가 심층적인 검색을 진행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자료검색, 지도검색, 컬렉션으로 구성된 검색 시스템은 세분화된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의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전통 음악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도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민속 음악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지도에서 특정 지역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기록물이 시대순으로 정리되어 특정 시기 동안의 민속 음악 변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자들에게 있어 전통적 민속 음악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해 그 맥락을 쉽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 3.2 해외 음악분야 디지털 아카이브

### 3.2.1 dbkpop.com(K-Pop Database)

dbkpop은 국내 K-POP 아티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팬 사이트로, 2016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여러 장소에 흩어져 있는 K-POP 관련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태 및 가공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콘텐츠는 해외 팬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dbkpop에서 제공하는 K-POP 아티스트 데이터베이스는 개인 및 그룹을 포함해 총 1,984건에 이른다. 사이트의

주요 메뉴는 'Database Tables', 'K-Pop Idol Profiles', 'K-Pop Group Profiles', 'Music Videos', 'News', 'Games', 'Forum'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메뉴인 'Database Tables'에서는 총 1,984건의 K-POP 아티스트 세부 정보를 테이블 형태로 제공하며, 항목은 프로필, 이름(영문/한글), 생년월일, 그룹명, 국적, 출생지, 성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아티스트의 프로필에서는 이미지와 함께 보다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K-POP 데이터베이스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K-Pop Dance Practice Videos Database'에서는 각 아티스트의 안무 연습 영상을 세부 키워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은 단순한 연습 기록을 넘어, 아티스트가 데뷔 전후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성장 과정과 퍼포먼스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보존 및 활용 측면에서 국내 관련 아카이브 기관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Music Videos' 메뉴에서는 'All K-Pop Music Videos', 'Girlgroup', 'Boyband', 'K-Pop MV Who Is Who', 'K-Pop Music Videos by Year Released'(2014년~2020년) 등으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K-Pop MV Who Is Who'는 dbkpop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아티스트의 모습을 콘셉트별로 정리한 이미지를 제공한다. 다만, 제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모든 영상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셋째, 'News' 메뉴를 통해 K-POP 아이돌과 그룹의 앨범 발매일, 활동 재개, 뮤직비디오 티저 및 콘셉트 등 공식적인 최신 정보를 기사 형태로 업로드하고 있으며, SNS와 연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메뉴에서는 간결한 기사와 고해상도 이미지를 함께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미지를 다운로드해 소장할 수 있다. 또한 'Games' 메뉴에서는 'Wordle', 'Spelling Bee' 등 K-POP 아티스트의 이름을 활용한 간단한 단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는 게임을 즐기는 동시에 K-POP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결과를 팬들과 공유함으로써 팬덤으로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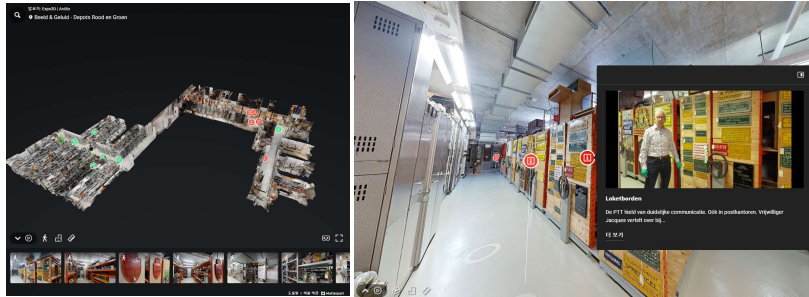
이처럼 dbkpop은 K-POP 아티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국내외 팬들과 일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팬덤 활동에 유용한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K-POP의 글로벌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3.2.2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은 네덜란드 공영방송 시청각 아카이브 센터, 문화유산청 영화 아카이브, 영화 과학 재단 아카이브, 방송 박물관을 통합하여 1997년 네덜란드 힐베르썸(Hilversum)에 설립된 시청각 매체 전문 아카이브 기관이다. 이 기관은 민주주의를 위한 자유로운 언론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미디어 제작자, 학계, 기업 등과 협력하여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미디어 환경의 동향을 주시하며, 라디오, 텔레비전, 유튜브, 팟캐스트, 게임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한 미디어 자료를 수집·관리·보존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이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은 오디오 약 110만 개, 비디오 약 100만 개, 이미지 약 19만 개, 문서 약 5만 개, 박물 6,500개에 달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소장 자료를 활용한 박물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기록물은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ound and Vision은 음악, 라디오, 텔레비전,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수집·보존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자료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uziekweb' 서비스는 가입 회원 및 일반 이용자에게 약 100만 건 이상의 음악 자료를 무료로 대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서비스이다. 주목할 점은 이 서비스를 통해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음악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곡과 앨범의 정보는 물론, 대출 전 30초 미리듣기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muziekweb’은 스포티파이(Spotify), 유튜브(YouTube) 등 외부 스트리밍 서비스와 연동되어 저작권 제한 없이 곡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상하고, 관련 정보를 추가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용자가 상업적 광고나 이용 요금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음악을 검색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며, 아티스트 및 앨범 추천 기능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취향을 발견하고 확장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그림 3>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헤이그(Hague) 분관 수장고 VR 투어

다음으로 <그림 3>은 Sound and Vision 헤이그(Hague) 분관 수장고를 VR로 투어하는 화면으로, 이용자들은 다양한 기록물이 보관된 수장고 내부를 가상의 360도 VR 이미지로 관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수장고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Sound and Vision은 이를 가상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수장고라는 특별한 공간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VR 투어에서는 사전에 제작된 기록물 소개 영상을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가 현장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것처럼 소장 자료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카이브 기관은 기록물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Sound and Vision은 체계적인 검색 시스템과 연계된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검색 시스템에서는 기본 키워드 검색은 물론, 메타데이터 항목별 키워드 검색과 기간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검색 결과에서는 자료의 디지털 여부, 저작권 상태, 자료 유형, 카탈로그 등 다양한 필터를 통해 정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로 인해 이용자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기록물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각 미디어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메타데이터와 함께 플레이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해당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저작권이 필요한 자료에는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 요청 시스템은 검색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잡하거나 번거로울 수 있는 유료 자료 활용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 3.2.3 Rock & Roll Hall of Fame Library & Archives

Rock & Roll Hall of Fame Library & Archives는 로큰롤 음악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기념하고 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1995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개관한 기념관이자 박물관이다. 명예의 전당에서는 매년 음악계 중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자, 로큰롤에 직접적인 영감을 준 예술가, 로큰롤 성장에 기여한 음악계 전문가, 독창성과 음악 창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 등 네 가지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하고 기념한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선정되는 것은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일 중 하나로 여겨지며, 수상자와 발표자는 대중음악 산업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된다. 선정된 인물 대부분은 시상식에 참석해 공연을 펼치며, 이 행사는 그 권위를 더욱 높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대중음악계의 유명 인사들과 관계자들은 관련된 희귀 자료들을 기증하거나 위탁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집된 컬렉션은 대중음악 연구 및 활용 측면에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에는 자료와 컬렉션의 관리·보존 및 학술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박물관 인근에 도서관과 기록관을 개관하였으며,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 도서관과 기록관은 대중음악 관련 책, 신문, 잡지, 음반은 물론, 아티스트의 개인 문서와 사진, 대중음악 관련 저술 및 연구자료, 음악 사업자들의 사업 기록 등 다양한 맥락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장·보존하고 있다. 주요 이용자는 교사, 학자, 작가 등으로, 대부분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연구 가이드, 아카이브 카탈로그, 디지털 저장소 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연구 가이드는 로큰롤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가이드는 총 150여 개로, 명예의 전당에 선정된 인물, 선정 후보자, 전시회 및 전시회 역사, 기타 세부 연구 주제 등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다. 내용으로는 주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서, 기사, 논문 등의 텍스트 자료부터 비디오, 오디오,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미디어 자료까지 폭넓게 제공된다. 또한 내부 소장자료와 외부 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이용자는 기관의 통합된 정보 접근 환경 속에서 필요한 자료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해당 연구 가이드를 활용해 연구의 출발점을 설정하거나, 진행 중인 연구를 심화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탐색할 수 있다. 예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평가받는 영국의 록 밴드이자 문화 아이콘인 비틀즈, ‘로큰롤의 왕’으로 불리며 음악사에 혁명을 일으킨 미국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서정적 가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어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 등의 연구 가이드가 활용되고 있다.

기록관에서는 대중음악과 관련된 디지털 저장소의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각 사이트에 대한 설명을 담은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저장소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연구기관, 도서관, 아카이브 등을 포함하며, 대중음악과 관련된 사진, 원고, 인터뷰, 악보는 물론, 이를 해석하고 분석한 기사, 논문, 도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목록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 웹사이트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여 주며, 기관에서 소장하지 않은 외부 기관의 자료에도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찾고자 할 때, 이를 보유한 외부 기관의 웹사이트로 직접 연결됨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연구 자료 탐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교사를 위해 수업계획안, 악보, 그래픽 자료 등과 연계된 디지털 자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대중음악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도구들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며,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일반 이용자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다만, 기관이 보유한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시청각 기록물은 현재 온라인으로 서비스되지 않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 3.3 국내외 음악분야 아카이브 기관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외 6개 아카이브 기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도출한 K-POP 아카이브의 글로벌 활용 방안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각 아카이브별 장/단점 분석에 따른 주요 시사점

구분	디지털 아카이브명	장점	단점	주요 시사점
국내	아리랑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 지원 (10개 국어)</li> <li>• 다양한 아리랑에 대한 설명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검색 기능과 콘텐츠 간 연계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 서비스는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음. 이에 글로벌 접근성을 고려하여 다국어 번역과 홍보전략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li> <li>• 콘텐츠 간의 연계성과 검색 고도화는 글로벌 이용자들의 경험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될 수 있음</li> </ul>
	서태지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덤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li> <li>• T's Map 기능을 통한 시간적·지리적 흔적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 검색 옵션이 없어 자료 접근성의 한계점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덤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는 K-POP의 글로벌 확산과 대중문화 유산의 디지털화에 매우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li> <li>• T's Map과 같은 지리·시간 정보의 시각화는 글로벌 팬덤들의 몰입과 감성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li> </ul>
	서울우리소리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 서비스</li> <li>• 지도를 활용한 기록물 탐색 기능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자 친화적 UI가 다소 미비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지도 기반 기능은 글로벌 이용자들에게 음악 콘텐츠에 대한 흥미와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li> <li>• 국내외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게 영상 및 음원 자료들이 큐레이션 됨으로써 손쉽게 콘텐츠 이용 가능</li> </ul>
국외	dbkpop.com (K-Pop Databa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들의 활용을 중점에 둔 데이터 제공</li> <li>• K-POP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 기반 비공식 아카이브로 운영되기에 자료의 공식성 및 신뢰도가 다소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 중심의 자율적 데이터 구축(아티스트의 안무 연습 영상 기록물 등)이 K-POP 글로벌화에 실질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li> <li>• 글로벌 팬들에게 일관된 품질의 K-POP 콘텐츠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들과의 장기적 신뢰 마련</li> </ul>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공</li> <li>• 외부 서비스 및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문제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한 검색시스템이 무거운 성능과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가져, 간단한 검색이나 일반적 이용자의 이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이용자들을 위한 아카이브 운영 시 법적 제약 해소와 실질적 접근성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즉 라이선스 요청 시스템을 검색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용 절차를 간소화</li> <li>• VR 투어 및 메타데이터 기반 정밀 검색은 일반 대중과 연구자 모두를 아우르는 서비스 모델이 될 수 있음</li> </ul>
	Rock & Roll Hall of Fame Library & Archiv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큰롤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도구 제공</li> <li>• 로큰롤 관련 자료의 다양한 연결점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중심의 자료 편중과 보존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운영(활용)정책으로 기록물 접근성에서 다소 어려움 발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연구자 중심의 아카이브는 K-POP의 학문적 가치와 대중음악 문화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음</li> <li>• 외부 디지털 저장소 연계는 글로벌 이용자들의 자료 접근성과 활용에 대한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li> </ul>

분석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K-POP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한 자료 보관의 기능을 넘어, 글로벌 이용자와의 소통, 문화적 확산, 그리고 참여형 콘텐츠 생산의 장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유기적 작동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글로벌 접근성과 확장성을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과 자료의 신뢰성 확보이다. 다국어 번역을 통해 콘텐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이용자들이 동일한 정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리랑 아카이브의 10개 국어 서비스처럼, 다국적 이용자 친화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콘텐츠의 품질과 일관성은 글로벌 이용자에게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메타데이터 정비, 출처 명시, 해상도 유지 등은 아카이브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이와 함께, 아카이브 간의 자료 연계 및 외부 저장소와의 통합 검색 기능은 활용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및 Rock & Roll Hall of Fame 사례처럼,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콘텐츠의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확보하게 한다. 이를 통해 K-POP 아카이브는 독립 플랫폼을 넘어, 세계 문화 정보 생태계의 일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팬덤 참여와 콘텐츠 구조화는 K-POP 아카이브가 팬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아티스트의 활동을 기록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구축된 자료는 단순한 소비자 콘텐츠가 아닌, 문화적 기억으로 전환된다. 서태지 아카이브의 팬 용어집, dbkpop의 안무 연습 영상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사례는 팬의 참여가 아카이브 콘텐츠 구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팬 주도의 콘텐츠 생산은 K-POP의 창작 맥락을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정서적 유대 형성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팬덤의 생산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공식 아카이브와 연결하거나 아카이브 내부에서 독립된 데이터 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형 아카이브는 K-POP이 지닌 팬 주도적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셋째, 기술 기반 서비스는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VR 전시, 360도 영상 투어, 지도 기반 시각화 기능 등은 물리적 제약을 뛰어넘어 팬들이 아티스트의 세계를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으며, 서울우리소리박물관의 VR 전시, 서태지 아카이브의 T's Map, Sound and Vision의 가상 수장고 투어는 이러한 기술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해외 팬들에게 강한 감정적 몰입을 유도 하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동시에 형성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검색 시스템의 고도화는 기술 기반 서비스의 또 다른 핵심이다. 메타데이터 기반의 정밀 검색, 결과 내 재검색, 상세 조건 필터링 등은 아카이브 탐색의 효율을 비약적으로 높이며, 팬은 물론 연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라이선스 요청 시스템을 검색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간소하게 처리하고, 실질적인 콘텐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K-POP 아카이브가 단순한 보관소를 넘어, 학문, 교육, 문화 콘텐츠 활용의 거점으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K-POP 디지털 아카이브가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접근성과 콘텐츠의 확장성 확보, 글로벌 팬덤 기반의 참여형 콘텐츠 구축 전략, 기술 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몰입형 사용자 경험 제공이라는 세 가지 축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들은 단기적으로는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K-POP이 세계 대중문화사에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자리 잡게 하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 3.4 KMDC(Korea Music Data Center) 분석 및 인터뷰를 통한 글로벌 활용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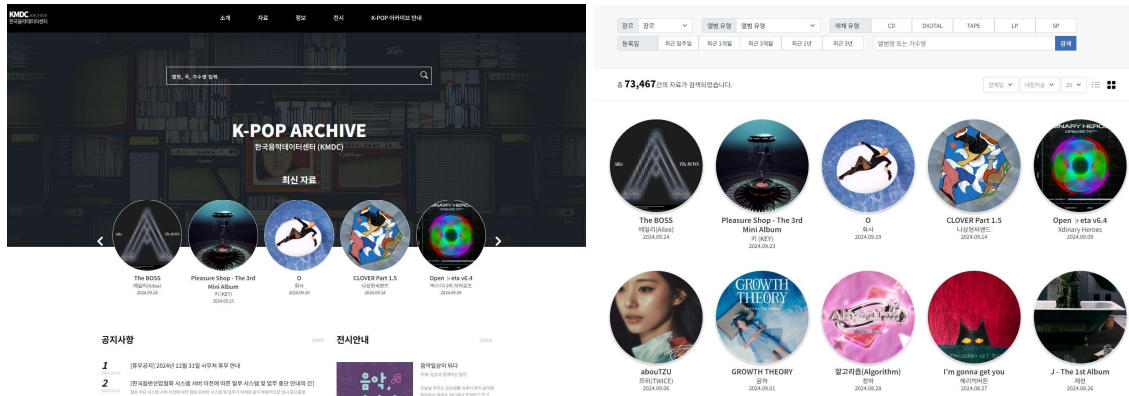
#### 3.4.1 KMDC 분석

KMDC는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2009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의 'kocca음악아카이브'로 시작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한국음반산업협회로 운영 주체가 이관되었다. 이 기관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근거하여, 한국 대중음악의 디지털 음원 및 표준 메타데이터(DB)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고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디지털화한 뒤, KMDC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물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표 3> KMDC 자료 소장 현황(2025.02.04. 기준)

매체 유형	CD	DIGITAL	TAPE	LP	SP	총합
보유현황(건)	62,956	1,234	27	8,733	415	73,365

현재 KMDC는 2025년 2월 기준으로, <표 3>과 같이 CD, 디지털 음원, TAPE, LP, SP와 같은 다양한 매체의 자료를 총 73,365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연도별, 장르별, 매체 유형별로 분류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4> KMDC 홈페이지 메인 화면(좌) 및 앨범 목록 화면(우)

<그림 4>의 좌측 사진은 KMDC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으로, 통합검색, 최신자료, 공지사항, 전시 안내, 전체 자료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메뉴는 ‘소개’, ‘자료’, ‘정보’, ‘전시’, ‘K-POP 아카이브 안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소개’ 메뉴에서는 KMDC 아카이브의 설립 목적, 운영 주체, 그리고 연락 이메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K-POP 아카이브 안내’ 메뉴는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무실과 올림픽홀 대중음악 기획 전시관의 주소 및 지도 등 단순한 안내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해당 메뉴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 추가 또는 메뉴 재구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KMDC 아카이브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안내하는 설명이 부족하여,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페이지에는 오타가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어, 전반적인 관리 체계의 미비점이 드러난다. 더불어, 홈페이지는 현재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아 글로벌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해외 K-POP 팬과 연구자들이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료’ 메뉴는 앨범 목록, 연도별 앨범, 시대별 대중음악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4>의 우측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KMDC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는 장르, 앨범 유형, 매체 유형, 등록일 등의 필터를 활용하여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수명이나 앨범명을 입력해 직접 정보를 찾을 수도 있다. 장르는 30개, 앨범 유형은 10개, 매체 유형은 5개로 세분화되어 있어 보다 정밀한 탐색이 가능하다. ‘연도별 앨범’ 메뉴에서는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분류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숫자, 한글 자음, 알파벳 색인 정렬 기능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항목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별 앨범을 클릭하면 가수명, 앨범명, 앨범 유형, 발매일, 매체 유형, 수록곡 및 참여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록곡을 클릭하면 가사도 함께 제공된다. 그러나 최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며, 음원을 직접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내된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존재한다. 또한 시대별 대중음악사는 2010년까지의 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그 이후의 음악사가 반영되지 않아 최신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보’ 메뉴는 공지사항과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공지사항의 경우 대부분 한국음반산업협회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자료 업데이트나 전시 정보 등 KMDC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전시’ 메뉴에서는 올림피아드 대중음악전시관의 위치, 관람 시간, 휴관일, 관람료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2011년부터 진행된 기획 전시의 주제 목록도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정보는 다른 관련 메뉴들과 통합하여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KMDC 아카이브는 법적 근거를 갖춘 국내 유일의 대중음악 공공 아카이브로, 고품질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특히 K-POP 산업과의 밀접한 연관성은, K-POP 음악 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기록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며,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아카이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KMDC는 장르, 앨범 유형, 매체 유형 등 세분화된 분류 체계를 통해 자료 검색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납본을 통해 자료가 꾸준히 축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아카이브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점에도 불구하고, KMDC 아카이브는 본 연구의 핵심인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적 측면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KMDC는 디지털 아카이브라기보다는 K-POP 음반 및 대중음악 데이터베이스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단순한 음반 정보 제공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학적 접근에 기반한 체계적인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음원 정보는 단순한 메타데이터 수준에서만 제공되며, 음원 자체를 직접 재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활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KMDC는 음반 정보를 넘어 K-POP 산업 전반의 기록을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팬덤 활동, 음악 산업의 변화, 기획사의 제작 과정 등 K-POP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관리하지 않아 단순한 대중음악 목록 제공 사이트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구 및 교육 목적의 활용성을 저하시킨다. 뿐만 아니라 KMDC 아카이브의 지속적인 관리 부족과 미흡한 서비스 제공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작성일 기준 최근 4개월 동안 음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며, 대중음악사 콘텐츠 또한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K-POP의 변화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홈페이지 서비스 측면에서도 일부 메뉴 구성의 중복과 비효율적인 설계로 인해 이용자 경험이 저해되고 있으며, 이용 안내가 부족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다국어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글로벌 이용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K-POP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다국어 서비스 확대와 UI(User Interface)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KMDC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KMDC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분석

분석 영역	분석 항목	세부항목	제공여부
접근성	정보제공	기관 연락처 제공	○
		관련 기관 연계	X
		다국어 지원	X
검색	검색도구	통합검색	○
		결과 내 재검색	X
		상세검색 및 필터기능	X
서비스	전시	온·오프라인 전시	△
	자료제공	교육/연구용 자료 제공 및 음원 다운로드 기능	X
운영	정책	자료 기증 정책	X
		SNS 활용	X

\* 제공여부 표기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하고 있지만 미흡 △, 서비스 미제공 X로 표기

### 3.4.2 KMDC의 글로벌 활용을 위한 전문가 및 국내외 K-POP 팬덤 인터뷰

본 절에서는 국내외 아카이브 기관의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토대로 KMDC의 글로벌 활용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문화콘텐츠분야 전문가, K-POP 팬덤 활동 경력자를 선정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이에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5명, 문화콘텐츠분야 전문가 3명, K-POP 팬덤 활동 경력이 있는 국내 참여자 8명, 해외(중국) 참여자 2명을 선정하여 FGI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기록관리 & 문화콘텐츠 분야)와 K-POP 팬덤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질문 내용은 디지털 기록에 대한 기본 인식 및 현황 평가, 아카이브의 구조 및 운영전략,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적 또는 운영적 요건,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작권 정책 등의 관련 내용과 다국어 접근성 강화, VR 기반 몰입형 UX(User Experience), 아티스트 중심 데이터베이스 구축, 팬 참여형 구조, 글로벌 아카이브 연계 등의 전략 요소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표 5>와 같이 전문가(기록관리 & 문화콘텐츠 분야) 질문 12개, K-POP 팬덤 질문 7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5> 전문가(기록관리 & 문화콘텐츠 분야) 및 K-POP 팬덤 인터뷰 질문지 내용

구분	항목	질문 내용
전문가	기본 인식 및 현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운영되고 있는 K-POP 관련 디지털 아카이브인 KMDC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li> <li>KMDC를 보완하거나 발전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li> </ul>
	아카이브의 구조 및 운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카이브가 단순한 음원·앨범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기 위해, 어떤 유형의 기록(예: SNS, 팬덤 활동, 굿즈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보존해야 한다고 보십니까?</li> <li>기록물의 수집 및 분류 과정에서 '표준 메타데이터'의 범위와 기준은 어떤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li> </ul>
	기술 및 사용자 경험(UX)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몰입형 UX(예: VR 전시, 인터랙티브 UI 등)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주는 효과는 무엇이며,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고려해야 할 기술적 또는 운영적 요건은 무엇인가요?</li> <li>팬 중심의 아카이브 설계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 참여형 기록 구조(예: 팬 기여 콘텐츠, 댓글 아카이빙 등)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li> </ul>
	법제도 및 윤리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카이브 내 음원, 영상, 이미지 등 저작물의 디지털 제공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 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li> <li>팬이 생성한 콘텐츠(2차 창작물 포함)를 아카이브에 포함할 경우, 어떤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li> </ul>
	글로벌 전략과 확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POP 디지털 아카이브가 해외 팬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려면, 어떤 글로벌 전략(예: 다국어 서비스, 위치 기반 연동 등)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li> <li>해외 유수의 음악 아카이브(예: Rock &amp; Roll Hall of Fame Library &amp; Archives,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등)와 협업하거나 연계 운영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li> </ul>
	미래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5~10년 안에 KMDC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li> <li>KMDC가 대중음악을 넘어서 글로벌 문화유산으로 기능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li> </ul>
K-POP 팬덤	기본 인식 및 현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MDC"라는 K-POP 디지털 아카이브를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셨다면,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li> </ul>
	아카이브의 구조 및 운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MDC가 더 좋아하려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예: 아티스트별 정보가 부족해요, 사용하기 어려워요 등)</li> </ul>
	사용자 경험(UX)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원이나 앨범 외에도, 어떤 K-POP 관련 자료가 아카이브에 추가되면 좋을까요?(예: 팬이 만든 굿즈, SNS 글, 팬카페 활동, 콘서트 후기 등)</li> <li>전 세계 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K-POP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 어떤 기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예: 자동 번역, 자막 기능, 해외 팬 커뮤니티 연동 등)</li> </ul>
	법제도 및 윤리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팬들이 만든 콘텐츠(예: 팬아트, 팬영상, 패러디 등)를 아카이브에 담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작권 문제, 팬의 동의, 익명성 보호 등)</li> </ul>
	글로벌 전략과 확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MDC 같은 아카이브가 해외 팬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요?(예: 다국어 번역, 국가별 콘텐츠 추천, 팬들과의 글로벌 소통 공간 등)</li> <li>여러분이 있는 지역(나라)에서 K-POP 관련 추억이나 자료를 아카이브에 올릴 수 있다면, 어떤 걸 공유하고 싶으신가요?(예: 내가 직접 찍은 사진, 현지 팬이벤트 후기, 팬아트, 굿즈 전시 사진 등)</li> </ul>

<표 5>와 같이 전문가 인터뷰는 총 12개의 질문지로, 국내외 K-POP 팬덤 인터뷰는 총 7개의 질문지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른 <표 6>은 각 항목에 따라 전문가와 국내외 K-POP 팬덤의 의견별로 도출된 주요 응답 내용에 대해 종합한 결과 내용이다.

<표 6> 전문가(기록관리 & 문화콘텐츠 분야) 및 국내외 K-POP 팬덤 인터뷰에 대한 응답내용 및 종합결과

구분	항목	내용
전문가	기본 인식 및 현황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DC는 산업적 데이터 수집 및 보존 기능에는 충실하지만, 팬 경험 중심의 UI·UX 설계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전략은 아직 초기 단계로 팬 중심의 접근성이 보완되어야 함</li> <li>•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KMDC가 일반 대중과 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다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기획과 소통 전략이 요구</li> <li>• 메타데이터의 표준화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아카이브 구조가 지나치게 '산업' 중심으로 짜여 있어 팬덤 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li> <li>• 글로벌 팬들의 접근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형식과 실시간 소통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팬들이 직접 아카이브에 콘텐츠를 추가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은 K-POP의 팬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임</li> <li>• 레코딩 세션 원본 파일이나 리허설 영상 같은 제작 현장 기록이 부재하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창작 과정 전반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li> </ul>
	종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DC는 산업적 기록의 수집과 보존에는 충실하나, 팬 경험을 고려한 UI·UX 설계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전략이 미흡하여 팬 중심의 접근성이 부족함. 또한 법적 기반과 운영 체계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 대중과 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기획과 소통 전략이 요구됨. 끝으로 메타데이터 표준화는 잘 이루어졌지만, 아카이브 구조가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팬덤 문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작 현장 기록의 부재로 인해 창작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에도 한계가 있음</li> </ul>
	아카이브의 구조 및 운영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카이브에는 SNS, 팬 커뮤니티 활동, 비공식 콘텐츠 등도 적극 수집되어야 하며, 창작 맥락 중심의 서사화 기능도 갖춰야 하며 팬덤 데이터의 메타데이터화 방안 필요함. 메타데이터는 정형 정보 외에도 정서적 맥락, 장소성, 시점 등의 요소까지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AI 기반 자동 태깅 시스템 필요</li> <li>• 향후 KMDC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집 대상의 범위를 보다 폭넓게 확장하는 동시에, 팬 및 일반 사용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큐레이션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li> <li>• 기존의 '앨범-음원' 중심 틀을 깨고, 팬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자료 범주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보다 의미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li> <li>• 음악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녹음-편곡 노트, 안무 스케치, 비하인드 컷 등 창작 전 과정을 기록하고, '제작 단계-스태프 명단-소요 시간' 등의 메타데이터를 추가해 연구-제작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함</li> </ul>
	종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DC의 활용성과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SNS, 팬 커뮤니티 활동, 비공식 콘텐츠 등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한 수집 범위의 확대와 함께, 팬 참여 기반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또한 창작 맥락 중심의 서사화와 감정, 장소성, 시점 등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정교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AI 기반 자동 태깅 시스템이 필요함. 기존 '앨범-음원' 중심의 틀을 넘어 팬의 시선과 경험을 반영한 새로운 자료 범주 정립과 음악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창작 전 과정 기록 및 메타데이터 확장이 KMDC의 아카이브로서의 가치를 제고할 것임</li> </ul>
	기술 및 사용자 경험(UX)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R 콘텐츠는 팬들에게 '현장 체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콘서트 중심 경험 콘텐츠 설계에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용자 행동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추천과 인터랙티브 UI/UX는 글로벌 팬의 체류 시간과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며, 팬 활동 기반 피드백 루프가 필요함</li> <li>• 고도화된 몰입형 UX 기술 도입에 앞서, 사용자 접근성, 검색 편의성 등 기본적인 사용자 흐름 설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팬과 일반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우선 과제로 판단됨</li> <li>• 팬 참여형 콘텐츠 구조가 핵심이며, 댓글·후기·기록 참여를 공식화할 수 있는 플랫폼적 기능이 필요. 즉 팬들이 생성한 콘텐츠를 아카이브의 공식자료로 포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팬들이 자신의 창작물에 아카이브의 공식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li> </ul>
종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60도 VR 영상, 인터랙티브 UI 등을 포함한 몰입형 UX 기술은 "콘서트에 대한 대안적 경험" 제공 측면에서 매우 유효한 전략으로 평가됨. 다만, 구현을 위해서는 기술적 접근성, 유지보수,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지속적 개선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팬 참여형 구조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여 기능뿐 아니라, 기록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커뮤니티 기반의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함</li> </ul>	

	<p>법제도 및 윤리적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팬이 제작한 2차 콘텐츠의 수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비상업적 아카이브에 대한 법적 유연성 필요</li> <li>• 법적 장벽보다 윤리적 가이드라인 부재가 더 문제이며, 팬의 창작 동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준 마련 필요</li> <li>• 권리자(기획사·제작사·작가 등)의 참여를 유도할 투명한 사용료 분배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고, 음악·방송 분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체계적 사용료 분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li> <li>• 아카이브가 문화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공적 목적의 콘텐츠 수집이 가능한 제도적 정비 필요</li> </ul>
	<p>종합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었음. 현재의 법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유 및 재사용에 있어 여전히 보수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 이용 확대 및 비영리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팬이 생산한 콘텐츠를 아카이브에 포함할 경우, 표준화된 동의 절차, 저작권 명시, 비상업적 이용 조건, 사용료 분배시스템 등의 명확한 설정 필요</li> </ul>
	<p>글로벌 전략과 확장 가능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국어 서비스와 위치 기반 콘텐츠 연동은 필수이며,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번역 전략이 병행되어야 함</li> <li>• 국가별 콘텐츠 소비 패턴에 따른 큐레이션과 글로벌 UX 디자인이 핵심이라고 응답함</li> <li>• 재외한국문화원, 국제문화유산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진행, 공동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통해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해외 팬 유입 및 문화교류 촉진을 제안함</li> <li>• YouTube Music, Spotify 등 글로벌 음악 플랫폼과의 콘텐츠 큐레이션 협업은 KMDC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팬 접점 확대 및 데이터 연계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파급 효과가 기대됨</li> </ul>
	<p>종합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POP의 글로벌 확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다국어 서비스 제공,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번역 및 설명, 국가별 이용자 특성에 맞춘 콘텐츠 추천 등이 제안됨. 또한 해외 우수 아카이브 및 문화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메타데이터 연동 가능성, 법적 협약 체계, 공동 큐레이션 프로젝트 및 문화교류 추진이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제시됨</li> </ul>
	<p>미래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KMDC는 기록 보존소를 넘어 '문화유산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디지털 기록이 곧 문화 자산이 되는 시대에 아시아 대중음악 기록의 중심이 될 수 있음</li> <li>• KMDC를 국제 문화예술기관·민간기업·팬덤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 구조로 발전시켜, 글로벌 문화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함</li> <li>• 팬덤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커뮤니티와의 상호작용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li> <li>• 인터페이스와 콘텐츠 설계가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콘텐츠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함. 또한 문화예술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카이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함</li> </ul>
	<p>종합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들은 향후 KMDC를 비롯한 K-POP 디지털 아카이브가 "글로벌 대중음악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데이터 보존을 넘어 팬 경험 중심의 문화적 아카이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팬과 아티스트가 공동으로 기록을 생성하고 소비하는 구조, 그리고 공공성과 개방성을 중심에 둔 기록철학의 재정립이 핵심 요소로 제시됨</li> </ul>
<p>국내의 K-POP 팬덤</p>	<p>기본 인식 및 현황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국내 응답자 중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KMDC를 처음 접한다고 답했으며, 전반적으로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아카이브의 목적과 주요 이용자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의 상용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KMDC만의 뚜렷한 차별성을 느끼기 어렵다고 응답함</li> <li>• 해외 : 응답자 전원이 KMDC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li> </ul>
	<p>종합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팬 대부분이 KMDC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하며 사이트의 낮은 인지도를 확인할 수 있었음. KMDC를 알고 있는 일부 팬들 또한 아카이브의 목적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li> </ul>
	<p>아카이브의 구조 및 운영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국내 팬들은 아티스트별, 장르별로 세분화된 분류 체계와 통합검색 기능 등 전반적인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KMDC만의 독창적인 정보 제공과 아카이브의 정체성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최신 데이터의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팬 소통 기능, SNS 연계 기능 도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li> <li>• 해외 : 해외 팬들은 사이트 내 아티스트 정보와 최신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언어 전환 기능을 포함한 국제화 기능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꼽았음. 이와 함께, 명확한 사이트 안내와 정체성 전달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SNS와 커뮤니티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음</li> </ul>
	<p>종합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팬덤은 공통적으로 아티스트별·장르별 분류 체계의 도입, 최신 정보 제공, 검색 및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강화, 다국어 지원을 통한 글로벌 접근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아울러 KMDC의 정체성 확립과 함께, 팬 커뮤니티와 연계된 적극적인 홍보 전략도 필요한 과제로 제시하였음</li> </ul>

사용자 경험(UX)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국내 팬들은 콘서트 일정, 셋리스트 등과 같은 공연 정보뿐만 아니라 팬카페 활동, 공식 및 비공식 사진, 후기 등의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길 원함. 아울러 팬 리뷰나 감상평과 같은 참여형 콘텐츠와 커뮤니티 활성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특히 가수들의 방송 출연을 포함한 다양한 K-POP 활동 기록이 아카이브에 포함되었으면 한다고 제시함</li> <li>• 해외 : 해외 팬들 사이에서도 콘서트 후기나 응원 후기의 중요성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외에도 팬카페 활동, 아이돌의 방송 및 라이브 영상, 인터뷰 및 리허설 영상, SNS 콘텐츠, 응원 굿즈 사진, 무대 후일담, 지역 팬 활동 기록, 무대 준비 과정 영상 등 팬의 경험이 담긴 다양한 콘텐츠의 수집 필요성을 제기하였음</li> </ul>
종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팬들은 팬이 직접 제작한 굿즈, 콘서트 후기, 공식·비공식 활동 기록 등 팬 주도의 다양한 K-POP 경험과 문화가 아카이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제안함. 이에 따라 팬 참여형 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메타데이터 기반의 정보 구조화, 그리고 글로벌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확산을 통해 KMDC의 사용자 경험을 보다 다면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li> </ul>
법제도 및 윤리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국내 팬들은 팬 창작물을 아카이브에 수록할 경우 저작권 보호, 창작자 동의, 익명성 보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특히 콘텐츠 선정 기준과 운영 방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li> <li>• 해외 : 해외 팬들 역시 공통적으로 저작권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우려했으며, 창작자의 사전 동의와 익명성 보장, 콘텐츠의 비상업적 사용 명시, 그리고 콘텐츠가 아이돌 및 아티스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함. 또한 업로드 전 콘텐츠에 대한 검열 및 검토 절차의 도입 필요성도 함께 제기함</li> </ul>
종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팬들은 모두 팬 창작물의 아카이빙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창작자 동의, 익명성 보장을 핵심 요소로 요구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사용에 대한 명확한 고지, 업로드 전 심사 및 동의 절차, 익명 업로드 시스템 등 법적·윤리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나타남</li> </ul>
글로벌 전략과 확장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 국내 팬들은 사이트에 자동 번역 기능과 다국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글로벌 팬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와 함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설 콘텐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사용자 경험, 팬 참여형 이벤트 등의 기능도 보강되길 희망함. 특히 지역 기반 콘서트나 이벤트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아, 이를 위한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음</li> <li>• 해외 : 해외 팬들 역시 자동 번역 및 자막 기능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그 외에도 글로벌 팬 커뮤니티 공간, 지역 기반 콘텐츠 추천 시스템, 정확한 번역 제공, 국가별 활동 소개, SNS 기반 정보 연계 등이 중요하다고 함. 특히 다국어 토론 게시판, 문화 교류 기능, 전 세계 팬 활동 일정을 시간대에 맞춰 자동 변환하는 기능, 해외 팬덤을 통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함. 특히, 공연 사진, 지역 팬 활동 기록, 동인 작품, 응원 문화, 콘서트 후기 및 굿즈 사진 등 자신만의 K-POP 감상을 공유하고자 하는 니즈도 높게 나타남</li> </ul>
종합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팬들은 공통적으로 자동 번역과 다국어 지원, 글로벌 팬 커뮤니티 공간, 모바일 환경 최적화, 각국 K-POP 콘텐츠 및 현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접근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됨. 아울러 글로벌 팬들의 활발한 참여와 문화 교류를 위해, 지역 및 국가 단위로 콘서트와 이벤트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었음</li> </ul>

KMDC에 대한 전문가(기록관리 & 문화콘텐츠 분야)와 국내외 팬덤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은 KMDC가 산업적 맥락에서의 음악 기록 수집과 보존 기능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서비스 측면에서는 UI-UX 설계가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으며, 글로벌 이용자를 고려한 정보 구조와 서비스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단순한 보존을 넘어, 팬 경험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분류 체계의 재정립, SNS 및 비공식 콘텐츠 등 비정형 데이터의 포괄적 수집, AI 기반 자동 태깅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메타데이터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음악 산업 전반의 창작 과정을 아카이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KMDC의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은 KMDC가 콘텐츠 수집 및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팬과의 소통 및 사용자 체감 경험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팬 경험을 중심에 둔 콘텐츠 기획 전략이 미비하며, 글로벌 팬을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문화콘텐츠 전문가들은 KMDC가 산업 기록의 보존을 넘어

서, 팬 커뮤니티의 활동과 목소리를 아우르는 플랫폼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국어 지원, 자동 번역 기능, 모바일 최적화, 지역 기반 콘텐츠 공유 시스템 등을 통해 글로벌 음악 문화 교류의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의 K-POP 팬덤들은 KMDC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플랫폼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검색 편의성 부족, 최신 정보 미제공, 불명확한 아티스트 및 장르 분류 체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 사용 경험이 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팬들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 후기, 팬 활동 기록 등이 아카이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의 팬 참여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글로벌 팬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확산, 다국어 지원 확대가 시급하며, 윤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 보호, 창작자 동의, 익명성 보장, 업로드 전 심사 및 동의 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할 때, KMDC는 단순한 기록 저장소를 넘어, 사용자와 팬이 함께 기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참여형 글로벌 아카이브’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K-POP을 비롯한 글로벌 대중음악 문화의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4. KMDC의 글로벌 활용을 위한 전략 도출

전문가(기록관리 & 문화콘텐츠 분야)와 국내외 K-POP 팬들의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다양한 의견은, KMDC가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 전략 요소를 도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주체의 입장에서 도출된 전략들을 토대로, KMDC의 글로벌 활용을 위한 여섯 가지 핵심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 관점에서 KMDC가 단순한 데이터 보존 기능을 넘어, 글로벌 사용자에게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공 아카이브로 기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다국어 번역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문화적 맥락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문화 번역(cultural translation) 기반의 메타데이터 설계가 요구된다. 단순 직역을 넘어, 한국어 mim과 정서를 설명하는 주석형 번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언어 설정에 따라 지역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큐레이션 알고리즘을 통해 팬들이 자국어로 자연스럽게 KMDC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국어 병기 검색, 키워드 자동 태깅, 자동완성 기능 등을 포함한 검색 편의성 중심의 정보 구조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KMDC는 팬과 함께 구축하는 공공 기록 보존소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팬이 보유한 오래된 콘서트 티켓, 팬카페 인증서, 희귀 굿즈 사진 등은 디지털 스캔 형태로 기증받아 ‘K-POP 디지털 유산 보존소(K-POP Heritage Vault)’에 등록하고, 이를 정식 문화 기록물로서 전시하거나 백서화하는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증자에게는 ‘K-POP 문화기록 공헌자’ 배지를 수여하고, 메타버스 기반의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KMDC의 기록물로서의 공공성과 참여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콘텐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KMDC가 글로벌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요구된다. 먼저, K-POP 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팬 창작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Fandom Studio 전략이 필요하다. 팬아트, 팬 영상, 굿즈 디자인 등 팬이 제작한 콘텐츠는 단순 수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식 리믹싱, NFT 기반 디지털화, 굿즈 제작 등으로 환원되어야 하며, 창작자는 ‘KMDC 공식 크리에

이터'로 등록시킴으로써 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XR 전시나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 KMDC는 팬 콘텐츠의 창작-유통-공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기관과 팬 사이의 새로운 협업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팬들의 기억과 추억을 시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지도(K-POP MAP)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 팬들이 남긴 콘서트 후기, 전시회 방문기, 굿즈 인증샷 등을 위치 기반으로 시각화하고, 해당 아티스트의 데뷔일이나 생일, 주요 수상일 등에는 자동으로 팬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팬덤의 열기와 추억을 공유하는 디지털 지도이자 공동체적 팬십의 상징적 기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내외 K-POP 팬덤의 입장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경험 설계와 정서적 교감을 통한 참여 유도 전략이 요구된다. 우선, KMDC는 팬의 감정 흐름을 기반으로 한 몰입형 감정 UI/UX 설계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팬 경험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콘서트를 선택하면 셋리스트가 순차적으로 구성되고, 각 곡마다 팬 댓글, 감정 이모티콘, 응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성으로, 팬의 '감동한 순간', '응원하고 싶은 곡' 등을 체크하면 개인화된 감정 플레이리스트가 생성된다. 이처럼 KMDC는 정보를 소비하는 플랫폼을 넘어 정서 기반의 공감 기록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홈마(홈마스터의 약칭)를 포함한 팬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활동 기록을 공식 아카이브에 포함시키는 커뮤니티 기반 팬 참여형 구조가 필수적이다. 팬들의 콘텐츠가 업로드되기 전, 저작권 보호, 창작자 동의, 익명성 보장 등의 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 번역 및 모바일 최적화, 지역 기반 콘텐츠 추천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팬 접근성과 문화 교류 기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여섯 가지 전략은, KMDC가 단순한 디지털 저장소를 넘어,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참여형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각 주체의 입장에서 도출된 전략들은, KMDC가 공공성, 창의성, 팬십을 아우르는 차별화된 글로벌 문화 기록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5. 결론

본 연구는 KMDC의 글로벌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K-POP은 이미 세계적으로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음악 산업을 넘어 K-패션, K-뷰티, K-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POP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문화적 가치를 전승하고 확산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디지털 아카이브의 역할과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문헌 연구,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 우수사례 조사와 전문가(기록관리분야 5명, 문화콘텐츠 분야 3명) 8명과 국내외 K-POP 팬덤(한국 8명, 중국 2명) 10명을 대상으로 한 FGI를 통해,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재적 한계와 향후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현재 대표적인 국내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인 KMDC의 기능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 데이터 중심의 수집 구조와 사용자 접근성 부족, 글로벌 대응 전략 부재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기반하여 아카이브가 기록 보존 기능을 넘어 팬과의 감정적·문화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 플랫폼으로 전환되기 위해 전문가(기록관리 & 문화콘텐츠 분야) 입장과 K-POP 팬덤 측면에서 총 6개의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입장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형 번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별 언어 설정에 따라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으로 큐레이션하는 문화 번역 기반의 글로벌 접근성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다국어 검색 편의 기능과 함께, 팬이 소장한 희귀 티켓이나 팬카페 인증서, 굿즈 사진 등을 디지털화하여 보존·전시하는 ‘K-POP 디지털 유산 보존소(K-POP Heritage Vault)’를 구축함으로써 기록물의 공공성과 팬 참여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둘째, 문화콘텐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팬아트, 팬 영상, 굿즈 디자인 등 팬이 직접 제작한 창작물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공식 리믹싱, NFT화, 굿즈 제작 등으로 재가공하여 전시하는 ‘Fandom Studio’를 운영함으로써 팬과의 창의적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세계 각지의 팬들이 남긴 콘서트 후기, 굿즈 인증샷, 전시 방문기 등을 위치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팬덤의 정서적 유대를 연결하는 ‘인터랙티브 팬덤 지도(K-POP MAP)’를 구축함으로써, 글로벌 팬덤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내외 K-POP 팬덤의 입장에서는 팬의 감정 흐름에 기반한 몰입형 UI/UX 설계를 통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팬 경험을 확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연 셋리스트에 따라 곡별로 감정 이모티콘, 팬 댓글, 응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사용자가 감동하거나 응원하고 싶은 순간을 선택하면 개인화된 감정 기반 플레이리스트가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팬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와 활동 기록을 아카이브에 포함시키는 커뮤니티 기반 시스템을 마련하되, 저작권 보호와 창작자 동의, 익명성 보장 등의 윤리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 번역 및 모바일 최적화를 통해 글로벌 팬 접근성과 문화 교류 기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단순한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개선을 넘어,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 철학과 서비스 패러다임을 팬 중심, 경험 중심, 문화 교류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K-POP이 지닌 감성적 특성과 강한 팬덤 문화를 고려할 때, 아카이브는 수동적인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 팬들의 감정과 기억이 축적되고 상호작용하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K-POP 디지털 아카이브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K-POP 디지털 아카이브가 지닌 공공성과 개방성, 그리고 기록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함으로써, 아카이브가 글로벌 문화유산으로 기능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아울러 현장의 기록관리 및 문화콘텐츠 전문가와 현재 활동 중인 국내외 K-POP 팬덤의 의견을 실증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이론적 제언을 넘어 정책적 실천 방안으로 확장 가능한 설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결론적으로, K-POP 디지털 아카이브는 과거의 음악적 기록을 보존하고, 현재의 팬덤 문화를 반영하며, 미래 세대에게 전할 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하나의 통합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K-POP은 단순한 한류 콘텐츠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문화 기록 모델로서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국립무형유산원 (발행년불명). 아리랑 아카이브. 출처: <https://arirang.iha.go.kr/>
- 김현태 (2024). K-POP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서비스 방안 연구 : BTS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서울우리소리박물관 (발행년불명). 서울우리소리박물관 홈페이지. 출처: <https://museum.seoul.go.kr/sekm/>
- 서은경 (2004). 디지털 아카이브의 영구적 보존을 위한 개념적 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3-34. <https://doi.org/10.4275/KSLIS.2004.38.1.013>
- 서태지 아카이브 (발행년불명). 서태지 아카이브 웹사이트. 출처: <https://www.seotaiji-archive.com/>

- 설문원 (2005). 과학기술 분야 디지털 아카이빙 정책 연구. *정보관리연구*, 36(4), 23-49.  
<https://doi.org/10.1633/JIM.2005.36.4.023>
- 이소연 (2002). 디지털 아카이빙의 표준화 OAIIS 참조모형. *정보관리연구*, 33(3), 45-68.  
<https://doi.org/10.1633/JIM.2002.33.3.045>
- 이승연, 장민호 (2019). K-pop 음악의 글로벌 성공 요인 분석.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3(4), 1-15.  
<https://doi.org/10.21184/jkeia.2019.6.13.4.1>
- 이아름 (2019).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 이영지, 오효정, 안승권 (2019). 대중음악 아카이브를 위한 K-POP 팬덤 기록 특성 분석 및 활용 방안 : 방탄소년단 팬덤 '아미'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0, 161-194. <https://doi.org/10.20923/kjas.2019.60.161>
- 이윤령, 이해영 (2014). 온라인 검색도구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국립기록관 검색도구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1), 75-100.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1.075>
- 이혁주 (2022). 예술아카이브의 음악기록 활용사례를 통한 대중음악기록의 관리·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KMDC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 정주신 (2022). K-pop의 미국 진출 전략과 빌보드 점령과정 : BTS를 중심으로. *한국과 세계*, 4(1), 7-42.  
<https://doi.org/10.22743/kwr.2022.4.1.7>
- 하은미, 설보연, 김현진 (2022). 디지털 아카이브의 온라인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지역 아카이브의 검색서비스 평가요소 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2(3), 83-102.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3.083>
- 한국음악데이터센터 (발행년불명). KMDC Archive. 출처: <https://www.k-pop.or.kr/>
- DBKpop (n.d.). K-pop Database. Available: <https://dbkpop.com/>
- Hodge, G. M. (2000). Best practices for digital archiving: An information life cycle approach. *D-Lib Magazine*, 6(1), <http://doi.org/10.1045/january2000-hodge>
- Malraux, A. (1947). *Le Musée imaginaire*. 김웅권 옮김 (2004). *상상의 박물관*. 서울: 동문선.
- Rock & Roll Hall of Fame Library & Archives (n.d.). Rock & Roll Hall of Fame Library & Archives' Research Guides site. Available: <https://library.rockhall.com/home>
-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 Vision (n.d.).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Website. Available: <https://www.beeldengeluid.nl/>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ung, Joo-shin (2022). K-pop's strategy to enter the U.S. and the Billboard occupation process : BTS. *Korea and World Review*, 4(1), 7-42. <https://doi.org/10.22743/kwr.2022.4.1.7>
- Ha, Eunmi, Seol, Boyeon, & Kim, Hyeonjin (2022). A Study on Improvements for Digital Archives Online Service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Search Service Evaluation Factors in Local Digit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2(3), 83-102. <https://doi.org/10.14404/JKSARM.2022.22.3.083>
- Kim, Hyun-tae (202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Service Plan of K-POP Digital Archive : Focusing on BTS. Doctoral dissert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 Korea Music Data Center(KMDC) (n.d.). KMDC Archive. Available: <https://www.k-pop.or.kr/>
- Lee Yoon-ryeong & Rieh, Hae-young (2014). 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for Online Finding Aids: Based on the Assessment of National Archiv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 14(1), 75-100. <https://doi.org/10.14404/JKSARM.2014.14.1.075>
- Lee, Ah-reum (2019). A study on the Globalization of Korean Popular Music. Doctoral dissertation, Kyungsung University, Korea.
- Lee, Hyeok-joo (2022). A Case Study on the Use of Music Records in the Art Archive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Popular Music Records : Focused on the KMDC Archive. Master's thesis, Joongbu University, Korea.
- Lee, Seung-yeon & Chang, Min-ho (2019). Analysis of Global Success Factors of K-pop Music.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13(4), 1-15. <https://doi.org/10.21184/jkeia.2019.6.13.4.1>
- Lee, So-yeon (2002). Standardization of Digital Archiving and OAIS Reference Model.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3(3), 45-68. <https://doi.org/10.1633/JIM.2002.33.3.045>
- Lee, Young-ji, Oh, Hyo-jun, & An, Seung-kwon (2019). Characteristics Analysis and Utilization Plans of K-POP Fandom Records for Popular Music Archives : Focused on the Case of BTS Fandom, A.R.M.Y.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60, 161-194. <https://doi.org/10.20923/kjas.2019.60.161>
-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n.d.). Arirang Archive. Available: <https://arirang.ihc.go.kr/>
- Seo, Eun-gyoung (2004). Conceptual Model for Developing Persistent Digital Archiv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13-34. <https://doi.org/10.4275/KSLIS.2004.38.1.013>
- Seol, Moon-won (2005). A Study of Digital Archiving Policies for National S&T Information Resource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6(4), 23-49. <https://doi.org/10.1633/JIM.2005.36.4.023>
- Seotaiji Archive (n.d.). Seotaiji Archive Website. Available: <https://www.seotaiji-archive.com/>
- Seoul Museum of Korean Folk Music (n.d.). Seoul Museum of Korean Folk Music Homepage. Available: <https://museum.seoul.go.kr/sekm/>